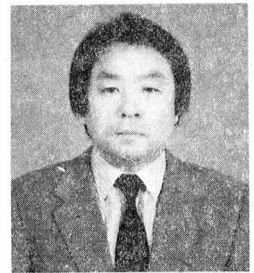


까막딱다구리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Dryocopus martius*
英名 Black Woodpecker



까막딱다구리는 種자체가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된 한국의 희귀조류이다.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희귀조류 크낙새와는 분류학상 사촌지간인 딱다구리의 한종이다.

몸길이는 두종 다 46cm로 가마귀 크기이고 색깔도 검은색인데 다만 숫컷을 이마에서 정수리에 미치는 머리가 진홍색이고 암컷은 뒤통수에 붉은색이 있다. 산림조류 중에서도 대체로 체구가 큰새에 속하여 딱다구리 특유의 나무를 탈 때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며 특히 나무를 찍을 때는 몇백미터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딱다구리가 나무 등걸을 두들기는 것은 나무속을 곤충이 파먹은 빈 동공을 찾기 위함인데 두들겨 보아 빈곳은 감각으로 알아내어 구멍을 뚫고 긴 혀로 곤충을 꺼내 먹는 천재이다.

흔히들 까막딱다구리를 보고서 크낙새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기도 하는데 흡사하나 크낙새는 까치모양으로 배가 흰 것이 특징이다.

까막딱다구리는 한국의 텃새이고 우리땅에서 번식을 한다.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까막딱다구리의 확실한 번식

지나 번식확인을 못하였으나 최근들어 강원도 영월과 오대산, 경기도 광능내에서 번식한 근거들이 속소 나오고 있는데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그전에는 용인, 안양등지에서도 번식확인이 된 일이 있고 강원도의 설악산에서도 서식이 확인된 일이 있기는 있었다. 아무튼 이 까막딱다구리의 서식은 야생조류에 대한 관심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시사해 준다.

91년 6월7일의 경우 아름드리 침엽수가 군락을 이룬 곳으로 한적한 개울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까막딱다구리를 추적한 결과 침엽수에 구멍을 뚫고 이미 다자란 어린새를 기르는 까막딱다구리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일반종의 딱다구리새끼와 같이 머리에는 붉은 깃털이 빛나고 있었는데 마리수는 나무동공에 몸을 감추고 있어서 확인할 길이 없었다.

최근 무제한 판매가 되는 고성능의 공기총이 곳곳마다 범람하여 행여나 까막딱다구리 같은 희귀조류들이 살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이들이 심히 걱정하는 일이다.

겨울철이 되면 까막딱다구리는 고산에서 야산으로 표행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